보 도 자 료

이제는 경제의 시간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보도일시	2025.6.4.(수)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	매수	1

담당부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갯벌연구팀)	소 장	김성곤 (031-8008-8364)
		팀 장	임성률 (031-8008-8366)
		담당자	김달영 (031-8008-8357)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토종 대하 150만 마리 방류. 경기바다 자원 조성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토종 대하 150만 마리 화성, 시흥 연안에 방류
- 사라져가는 토종 대하의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종자생산에 성공한 토종 대하 150만 마리를 6월 4일과 5일 이틀간 화성 궁평항과 시흥 오이도 인근 연안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토종 대하는 지난 4월 전남과 시흥 오이도 해역에서 확보한 자연산 어미로부터 알을 받은 개체다. 크기는 1.2cm로,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했다.

어린 대하는 방류한 연안해역에서 자라며, 성장이 빨라 오는 10월 중 어획이 가능한 15~20cm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서해 대표 수산자원인 토종 대하는 양식으로는 생산되지 않고 자연 생산량도 적어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품종”이라며 “방류를 통해 사라져 가는 토종 대하의 자원이 회복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0년부터 주꾸미, 바지락 등 유용한 수산 종자의 생산 방법을 연구해 경기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 종자 생산시험 품종으로 바지락, 가무락, 주꾸미, 갑오징어, 꽃게, 민챙이 시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된 종자는 순차적으로 경기바다에 방류될 예정이다.

경기도